



봄철 영농시기 고병원성 AI 방역관리 방안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

I. 현황

◎ **(추진배경)** 철새 북상이 진행 중이고,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관리 추진 필요

○ 북상하는 철새 개체수가 감소하고, AI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*됨에 따라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방역관리 방안 마련

*24.3.22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전국의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 될 예정임

◎ **(상황진단)** 3월 전국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고, 철새 개체수 감소로 위험도는 낮아졌지만, 봄철 영농활동 등으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 상존

○ 과거 봄철(3월 이후)에도 가금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*하였고,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지속 검출**될 수 있어 위험성은 상존

구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
	3월	4월	3월	4월	3월	4월
농장*	5건 (산란계 2, 토종닭 1, 육용오리 2)	1건 (육용오리)	1건 (육용오리)	1건 (산란계)	2건 (토종닭 1, 육용오리 1)	4건 (육용오리)

**철새 항원 검출 : ('23.11월) 1건 → ('24.1월) 12건 → ('24.1월) 4건 → ('24.2월) 2건

○ 봄철 영농시기* 및 방역지역 해제 등으로 농가의 경각심이 해이해 질 우려***가 높으므로 농가 대상 방역지도 및 홍보 필요

* 3월말~4월 농지 경운작업(논밭갈고 농사짐)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함

**영농을 겸업하는 가금농가의 경우 논밭작업 이후 농가 진입 전에 농기계 등 방역관리 강화요구

- 그간 역학조사 결과('22~'23)를 분석해 보면,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및 차단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
 - * 농장유입 원인: 철새도래지 및 농경지에 오염이 있었고 차량과 사람을 통해 전파
 - * 발생농장 미흡사항(75호 대비 비율): 1. 축사전실 및 소독 미흡(84%), 2. 차량소독 미흡(83%)
- 겨울 철새는 3월부터 서식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, 4월에는 복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임
 - * '22~'23년(200개소 기준): ('22.12월) 157만수 → ('23.1월) 139 → (2월) 130 → (3월) 66

II. 방역관리 방안

1 가금농장 차단방역관리

- ◎ (차단방역 관리) 전체 가금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영농시기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검역본부·지자체, 가금 계열사, 생산자단체, 농협을 통한 방역수칙 지도

구분	관리 내용	관리 주기
검역본부 및 지자체	○ AI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도·점검	수시
가금계열사	○ 정기적으로 가금 이상 유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우선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	매월 격주
생산자단체 및 농협	○ 회원 소속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·홍보	매월 2회

봄철 영농시기의 주요 차단방역 수칙

- ① (영농 겸업농가의 농기계·장비 관리)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논·밭에서 작업하는 농기계·장비는 작업 후, 논로 및 도로 진입 전 소독차량 등을 활용하여 바퀴 등 고압 세척·소독 - 논·밭에서 작업한 농기계·장비는 반드시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, 외부에 보관 조치
- ② (차량·장비 소독)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과 장비는 가급적 가금농가를 우회하도록 지도 하고, 가금농가 주변 도로 등에 흙·농업 잔여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소독차량 등을 활용

하여 고압 세척·소독으로 제거

- 농가에서 지자체에 소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독자원 지원

③ **(농가의 농업활동 관리)** 가금농가 내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기계·장비 출입 및 야생동물 접근 등으로 질병 전파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농업활동을 자제하고, 부득이한 경우 출입하는 농기계·장비는 충분한 세척·소독 관리

④ **(혼합사육 농가 관리)** 가금과 소 등을 혼합 사육하는 농가는 울타리 등으로 분리하고, 소 먹이, 왕겨 등 반입시 이동장비, 차량 등에 대한 소독 관리 철저

⑤ **(영농활동 관리)** 영농활동 중에 논·밭에서 철새 등 가금류 폐사가 확인되거나 AI 의심증상이 확인되는 경우, 즉시 신고(야생조류 110 정부민원콜 / 사육 가금 1588-4060)

※ 일반적인 AI 방역관리 주요 차단방역 내용은 <붙임 1>을 참조하여 지도

- **(사람·차량 출입통제)** 농장의 외부인 출입 차단 및 축산차량 출입 관리

- **(야생동물 관리)**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, 환기구 및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철저

2 가금농장지도·홍보강화

◎ **(농가 지도·홍보)** 가금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AI 방역 생활화를 위해 마을방송, 문자 발송, 알림톡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

○ 농장의 사람·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*하고, 영농활동에 사용한 농기계·장비에 대한 세척·소독관리 철저토록 지도·교육

*농장내 우편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, 농장 관계자가 외부에서 우편택배 등 수령

○ 평시에 사육 가금의 상태를 매일 관찰하고,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AI 의심증상 확인 시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

◎ **(외국인 근로자)** AI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(3개국*)로 번역된 '핵심 방역수칙' 영상을 활용하여 농장주 통해 상시 교육

*태국, 네팔, 캄보디아(23.6월 기준 2,908명 중 3개국 2,505명(86%) 차지)

○ AI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게 핵심 메시지* 위주로 전달,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

* i)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, ii)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(쪽문)으로 출입 금지, iii)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, iv) 사용 전후 기계·장비 세척·소독 등 준수

문자메시지(SMS) 내용

- ◎ 첫째,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◎ 둘째, 영농활동을 겸업하는 축산농가는 농기계와 장비를 논·밭에서 사용 후 충분히 세척·소독하고, 농장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, 외부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◎ 셋째,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과 장비로 가금농가의 주요 도로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소독차량 등을 활용하여 세척·소독합니다.
- ◎ 넷째, 축사 진입 시,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을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합니다.
- ◎ 다섯째, AI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.

3 가금농장및 축산관계 시설 소독강화

- ◎ **(집중 소독)** 영농활동 시기의 가금농가 주변 농로 및 도로에 대해 지자체 및 농협 공동방제단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 실시
 - 특히, 매주 수요일『축산환경·소독의 날』에 대규모 산란계 등 고위험지역 가금농가의 주변 농로와 농기계·장비에 대한 소독 강화
 - ◎ **(일제 소독)** 정기적으로 축산환경을 정비하고,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『축산환경·소독의 날』로 지정하여 지속 운영
 - 평시에도 축산농가와 관련시설(도축장·사료공장 등)은 정기적으로 내·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, 일제히 소독하여 방역관리

* 농가는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구서·구충 작업 및 환기구·배기구 등에 차단망 설치 등 실시, 농가입구의 차량소독기·대인소독기 작동 여부 점검 등 방역 취약사항 정비

 -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제소독의 날 운영
- ◎ 봄철 영농시기 AI 방역관리 방안을 관계기관·단체에 통보(3월)

구분	기관별 추진 업무
지자체	○ 관내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에서 '일제소독의 날' 이행 지도 및 독려 ○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관내 방역취약지역 소독 실시
검역본부	○ KAHIS 등록된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대상 참여 독려 문자 발송
방역본부	○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농가의 축산환경 정비 및 소독 실시 홍보
농협	○ 방제단 소독차량을 활용하여 밀집단지 및 농장 진입로 등 방역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소독
생산자단체	○ 회원 농장을 대상으로 문자, 카톡 발송 등을 통해 안내

III. 향후 계획

붙임 1 농장·관련시설의 주요 기본 방역수칙

가금농장

농장 외부	○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, 불가피 시 사전 신고 및 방역복 착용·신발 소독(덧신 착용) 후 진입
	○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기계는 작업 후, 농로 및 도로 진입 전에 세척·소독 철저(가금농가는 우회하도록 조치)
	○ 보유 농기계·차량은 농장 외 보관, 불가피한 경우 세척·소독 후 농장 출입
	○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
	○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(늪·산책 등), 소화천, 농경지, 소류지, 저수지 및 야산 방문 자제
○ 농장의 분뇨 배출시 작업자와 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분뇨 배출량에 대한 세척·소독 상태를 꼼꼼히 확인	
농장 내부	○ 소독설비, 울타리,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
	○ 회용 난좌 사용, 파레트, 합판, 지게차 등은 사용 전후 세척·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 시설에 보관, 농기계·장비는 다른 농장과 공동 사용 자제
	○ 농장 마당,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·소독, 쥐·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
축사 내부	○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(쥐·새 등) 차단용 그물망 설치 및 틈새 막기
	○ 축사 출입시 방역복·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, 전용장화 갈아신기 준수
	○ 축사 내부 매일 소독, 축사 입구 신발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
	○ 기계·장비(왕겨살포기 등) 진입시 충분한 세척·소독 실시
	○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, 산란율 저하, 설사, 기침, 졸음,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,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(1588-4060, 9060)에 즉시 신고

축산시설

축산 시설	○ 출입 차량·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(운전석 포함) 철저
	○ 가금 수송용기(어리장), 식용란 운반 용기(난좌, 파레트, 합판) 등 소독 철저
	○ 축산시설 내·외부를 매일 세척·소독하여 오염원 제거
	○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(쥐·새 등) 차단용 그물망 설치

붙임 2 영농시기 SI 예방 관련 마을방송(안)

- ◎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- ◎ 가금농가는 영농시기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첫째, 농업 활동을 겸업하는 축산농가는 농기계와 장비를 논·밭에서 사용 후 충분히 세척·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둘째, 사용한 농기계와 장비는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, 외부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셋째, 매주 수요일인 『축산환경·소독의 날』에는 농장 내외부 청소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,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넷째, 가금농가 내부에서는 가급적 농작물 재배를 자제하고, 부득이한 경우 출입하는 농기계와 장비는 충분히 세척·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다섯째, 농장주는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주시고,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방역복과 전용신발을 착용 후 대인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◎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※ 각 마을별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마을방송 문구로 활용

**봄철 영농활동 시작 및 철새 복상 진행에 따른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
지속적인 SI 방역관리(차단방역·홍보·소독) 강화 추진**